사무국은 낙농가의 뜻과 정성이 담긴 자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미국 등 낙농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자조금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낙농의무자조금사업이 농협중앙회와 낙농육우협회가 공동 운영한다. 서로간의 깊은 신뢰와 합심 노력으로 오로지 한국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모두가 자조금의 주인

낙농자조금대의원회 의장 김장현

옛말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예컨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라는 말이지요. 그동안 우리 낙농인들이 이 교훈을 어쩌면 잊고 살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자조금을 형성하여 우리의 생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보자는 결의를 도출한 낙농인 제위에게 서로 자축하면서 찬사를 보냅니다.

작금의 세태는 생산자의 시장이 아니라 판매자의 시장이며 이는 소비자가 왕이며 소비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산업은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점을 행여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첫째, 우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유 전문가나 우리 같은 생산자들은 그 가치를 대충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유라는 귀한 양식을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는 요구르트로 대표되는 제품이 한 두가지 있을 때였습니다. 참으로 농업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어느 분이 자기 아이들에게 요구르트를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요구르트를 먹이면 우유도 먹고 유산균도 먹으므로 별도로 백색우유를 먹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우리 소비자들은 유산균 음료와 백색 우유를 대강은 구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에 대한 식품적 가치를 꼼꼼하게 이해시켜서 다른 유제품과는 별개로 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을 주입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둘째, 우유를 먹는 연령층입니다. 우유는 어린이들이 먹는 것이고 성인들은 먹어봤자 별 효과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무덤전까지 우유를 먹자는 켐페인을 우리 업계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자는 아직 실감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백색 우유의 블루오션(blue ocean)이 코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이 일을 게을리 하고 있었던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셋째, 우유는 왜 더욱 신선해야 되는가? 식품의 생명은 신선도 입니다. 우유는 더욱 그러합니다. 신선도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넷째, 어떤 우유가 좋은 우유고 어떤 우유가 질이 떨어지는 우유인가를 소비자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언부언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조금으로 우리의 생업인 낙농업을 발전시켜 무역경쟁, 무한경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어 태동기에 중책을 맡게되어 보람도 있지만 이 일의 원만한 수행에 저의 능력이 충분치 않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이 조직의 책임자라는 인식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혼신을 다하여 낙농자조금 제도를 정착시키고 그리하여 낙농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을 다짐합니다.

협회 역사 자료집 발간 관련 자료 협조요청

우리협회가 어느덧 설립 30주년(2010년 1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협회는 우리나라 낙농육우사와 함께한 본회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협회 역사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국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협회의 역사적 기록들은 매우 귀중한 경험이자 향후 낙농육우산업의 위기 방안마련에 있어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편찬을 위해서는 협회 활동사를 고증할 수 있는 관련사료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와 관련한 신문기사(주로 70~80년대, 90년대 초), 사진 등을 소장하고 계신 분은 협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관련자료를 협회로 우편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조하여 주신 자료는 참고 후 반드시 빠른시일 내에 반환하겠사오니, 자료 뒷면에 보내신 이의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전화 : 02-588-7055~6 / 팩스 : 02-584-5144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한국낙농육우협회